

#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수용과 발전 연구 소고(小稿)\*

김흥규 | 외교안보연구원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수용 과정을 소개하고, 그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단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과 대외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는 초기의 전 이론적 단계를 거쳐, 이론 수용의 초기 및 성숙 단계를 거쳐 오늘날 독자적인 이론, 혹은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화를 모색하는 창조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유파들이 상호 경쟁하는 구도, 즉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중국학계 내에서 지난하게 추구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제관계 연구의 중국화 및 과학적 발전은 그 수준에 있어 아직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다.

중국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실증적인 연구가 여전히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구성주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관계 연구가 이론 분야보다는 정책성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의 발전이 중국의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와 외교정책 사이의 동조화 현상은 대단히 중국적인 특색이다. 중국 내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 분파들이 형성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중국 내 다양한 외교사상의 형성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더 이상 단일한 사교나 사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중국 국제관계이론, 중국 특색, 중국화, 구성주의, 중국학파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수용 과정을 소개하고, 그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단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과 대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연구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42-B00164)에 따른 연구의 결과임.

외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에 관련한 많은 글들이 중국내에서 출판되고 있지만 영미권이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다.<sup>1)</sup> 두 번째로 대부분의 분석은 연대기적인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춰 보다 일반성을 확보한 횡적인 분석들에 입각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세 번째, 중국 이외에서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과 대외정책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sup>2)</sup>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의 가장 주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 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전화한 2008~09년 기간에도 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세계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릴 정도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sup>3)</sup>

이러한 중국의 성공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성공의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중국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 여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건은 중국이 서방 국제관계이론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눈 뜨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서방의 국제관계이론을 받아들이며 국제관계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국제사회 편입이 본격화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연구를 통하여 그간 부단히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인

- 1) 중국내 다양한 글이 있지만 저서 수준의 연구로서는 왕이저우 편(王逸舟 主編 2006, 2008), 친야칭(秦亞青 2008a), 자오커진·니스승(趙可金·倪世雄 2007), 샤오환룽 편(肖歡容 主編 2005), 귀수용 편(郭樹勇 主編 2005), 푸야오주·구관푸 편(傅耀祖·顧關福 主編 2005), 량수더·류원상(梁守德·劉文祥 2003), 루이·위정량·푸야오주·구관푸 편(魯毅·俞正梁·傅耀祖·顧關福 主編 1999), 위안밍 편(袁明 主編 1993)이 대표적이며 중국내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주요 사이트로는 “중국국관재선(中國國關在線)”의 <http://www.irchina.org>가 있다. 또한 영문으로는 후 외(Hu et al. 2000), 찬(Chan 1998), 장(Zhang 1997), 캘러헌(Callahan 2001), 송(Song 2001), 장(Zhang 2002), 국문으로는 한상희(2002)와 중국정치연구회의의 대외관계 어젠다 발굴 세미나 발표글인 김애경(2006)이 있다.
- 2) 이와 관련한 드문 글로는 송웨이(宋僞 2009)가 있다.
- 3) G-2라는 용어는 2006년 미국 경제학자 도널드 스트라즈하임이 IMF회의에 참여하여 “지금 국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강조한 데서 비롯되며,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이를 자신의 칼럼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식과 분석의 틀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성과는 대외정책에도 투영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관계학계가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은 우선, 기존의 사유를 극복하면서 서구 국제관계 이론이 이룩한 정신, 규율, 규칙 등의 성과를 이해하고 흡수하는 일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적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을 모색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적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연구를 결합하여 중국적 국제관계학을 수립하는 것이다.<sup>4)</sup> 물론 이러한 단계는 단선론적인 발전을 전제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이러한 단선론적인 과정을 밟기보다는 각 단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발전한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추상화한 발전단계는 다음 세 가지의 방향을 차례로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어떠한 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내에서도 시기에 따른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그런데 외교학원 친야칭(秦亞青) 교수가 제안한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에 대한 평가기준은 연대기적 설명을 넘어서 중국학자는 물론이고 외국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횡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 평가기준은 <표 1>과 같다. 이 글에서는 이 분석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로는 제2장에서 중국 마오쩌둥 사회주의 시기 국제관계 연구의 수용과정 및 추세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통시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관계 발전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정립 노력을 소개하고 현 단계에 대한 분석을 시

<표 1> 중국 국제관계이론발전 단계 판정기준

발전단계	연구유형	학파분포	논의방향
이론 前 단계	비이론적	단일	무방향성
이론 학습단계	초기	평가주도형	다원
	심화기	평가+적용	주류학파+다원
이론 창조단계	창조형	주류학파+다원	상호영향+수용+비판

출처: 친야칭(秦亞青 2008b, 311)

4) 이러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과 국제관계학을 분리한 사고는 왕징용(王經涌 2005, 360-372)을 보라.

도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이 중국 대외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는 아직 “중국화”의 단계가 충분히 발현되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이론 전(前) 단계에서 점차 이론 학습단계를 거쳐 이론 창조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I. 국제관계 연구의 도입과 추세

중국에서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리를 잡은 서구에 비해 뒤 늦게 수용되었다. 물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나 학회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종합잡지인 『동방자즈(東方雜誌)』에 전문적인 국제관계 칼럼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쌍따오(向導)』, 『천중(群衆)』, 『제팡르빠오(解放日報)』, 『제팡저우칸(解放週刊)』 등에서 다량의 국제관계 논설들이 실렸다. 상해에서도 진중화(金仲華), 첸전루이(錢俊瑞), 류쓰무(劉思慕) 등이 주동이 되어 국제관계학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출판된 저서로는 『전후 국제 신형세』, 『미·소관계론』, 『국제문제 연구법』 등이 있었다. 그러나 리스성(李石生)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수준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으며, 체계적인 연구 기관도 결여하고 있었다.<sup>5)</sup>

195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중국내에서는 인민대학에 외교학과가 하나 개설되었으며 1955년에는 외교학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비로소 대외관계 관련 연구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내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관심은 한 국전쟁이후 냉전의 격화, 세계 비동맹 운동의 확산, 중소분쟁의 발생 등 다변하고 복잡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올바른 대외정책의 형성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는 당시 국제관계 연구 경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대부분의 국제관계 관련 글들은 중앙 지도자나 기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내부보고서나 조사와 연계되어 있었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王逸舟 2006, 2-3).

5) 루이·위정량·푸야오주·구관푸 편(魯毅·俞正梁·傅耀祖·顧關福 主編 1999, 26-27)에서 리스성의 글 참조.

1960년대 초까지 소련 및 동유럽은 물론이고 일부 서방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저작들도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관계와 관련된 책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번역물들은 『국제문제번역총서(國際問題譯叢)』, 『세계사자료총서(世界史資料叢刊)』, 『국제사무총서(國際事務概覽叢書)』 등으로 발간되었다(王逸舟 2006, 3).

당시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선입견이 대단히 강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소련 일변도 외교라고 불리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소련의 연구방식을 모방하여, 국제정치학이라 불렀던 학문은 주요 정치지도자들 즉,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국제정치관을 주로 소개하였다. 각 대학의 교과목 과정들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관한 맑스 이론, 민족해방운동, 전쟁과 평화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나온 대학교재들은 『중국에 대한 레닌과 스탈린(의 견해)』(북경, 1953), 『전후 국제정세에 관한 스탈린(의 견해)』(북경, 1954), 『국제정세에 관한 마오쩌둥 동지의 언술들』(북경, 1958), 『식민주의에 대한 맑스·엥겔스(의 견해)』(북경, 1962), 『국제정세에 대한 스탈린(의 견해) 및 소련 외교정책』(북경, 1964) 등이었다(Hu et al. 2000, 17).

중소분열이 격화되던 1960년대 초에 중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수정주의 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인재배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1963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지시와 당 중앙의 결정으로 “대외문제연구 강화에 관한 문건(加強外國問題的研究文件)”을 채택하였다(趙可金·倪世雄 2007, 54). 이후 북경대, 복단대, 인민대 등 중국 주요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를 설립하였고,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하나의 학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 대학 간 역할분담이 주어졌다. 인민대는 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소련·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문제에 대한 연구, 북경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 문제에 대한 연구, 복단대는 미국·유럽·일본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를 전담했다(趙可金·倪世雄 2007, 55). 동시에 외교부나新华社, 사회과학원 등 당·정 기관 내에도 국제문제연구소 등 대외관계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고 13개에 달하는 외국어 대학이 설립되었다(Song 2001, 61-62).

중국은 비록 정치·군사적으로는 소련 수정주의에 대항하고 미국 자본주의 세력과 투쟁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지만 국제관계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리고 점차 문화대혁명이 고조됨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다. 민족 혁명, 반제봉건투쟁 등이 주요 연구항목이 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폐쇄적인 형태가 되면서 비록 맹아적이기는 하지만 잠시 존재하였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중단되었고 아울러 연구기관들도 폐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중국의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암흑기이기도 하였다. 북경대학교 교수 리스성에 의하면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되기 이전 1970년대 중국내에서 가르쳤던 국제관계이론은 마오쩌둥의 제3세계이론에 집중되었고, 오직 외교학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국제관계이론 과목이 하나 개설되어 있을 뿐이었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중국 마오쩌둥 사회주의 시기 국제관계 연구는 정책 수립을 위한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국제관계 연구 경향은 오늘날 서구적인 기준으로는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전(前) 이론적인 단계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파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에 종속되어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론'은 서구적인 의미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이론이 아닌 정책적 정향을 제시하는 사상적 원칙과 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관계 이론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II.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도입과 전개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으로서의 국제관계이론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학의 구성을 국제관계의 역사(사), 이론(론), 현상분석(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했을 때(謝益賢 1987, 34), 당시 중국 학계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는 이론 분야였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은 자체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전파해 들어온 외래품(舶來品)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 온 것이다.

개혁 이후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발전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제시한 친야칭 교수의 분류법을 빌어 표현하자면, 개혁 이후 1990년까지를 이론 학습단계의 초기시기, 1990년대를 이론 학습단계의 심화기, 21세기 들어서서는 이론 창조단계 초기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론 학습단계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고 다음 장에서 이론 창조단계로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모색을 다루고자 한다.

6) 리스성의 분석은 상해국제관계학회 편(上海國際關係學會 編 1991, 26-38) 참조.

## 1. 이론 학습단계의 초기시기(1978~1990년)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대외접촉이 대폭 확대되고, 국제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급속히 심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덩샤오핑(鄧少平)은 1979년 봄 정치학 등 관련학과에서 빨리 세계정치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 중앙은 1984년 “당 중앙 학교사상 소질 및 정치이론 교육의 개혁에 관한 통지”를 채택하였고, ‘세계정치경제’와 ‘국제관계’를 각 대학의 기초 정치이론 과목 중 하나로 정할 것을 결정하였다(魯毅·俞正梁·傅耀祖·顧關福 主編 1999, 15).

당 지도부의 지지와 현실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 관련 5대 주요 학술지인 『세계경제와 정치(世界經濟與政治)』, 『구주연구』, 『외교평론』, 『국제관찰』, 『현대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친야칭 교수가 조사한 1978~1990년 사이의 국제관계이론과 관련한 논문 수는 총 80편으로 매년 평균 6편 정도의 논문이 이들 주요 저널에 게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자면,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까지는 단 한편의 국제관계이론 관련 논문도 실리지 않다가 1982년부터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89년에는 2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었다(秦亞青 2008b, 31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87년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상해에서 국제관계이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맑스주의 마오쩌둥 사상으로 국제관계를 분석하느냐가 주요 주제이긴 하였다. 그러나 서방 국제관계 이론과 관련한 연구가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서술·귀납과 분석·전망의 형태를 떠나 보다 개념이나 이론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魯毅·俞正梁·傅耀祖·顧關福 主編 1999, 15).

이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이론적 공백을 과거의 맑스·레닌주의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분야에서 장지량(張季良)의 『국제관계학 개론』, 량서우더(梁守德)의 『국제정치학이론』, 펑터쥘(馮特君)의 『국제정치개론』이 대표적인 저작이었다(趙可金·倪世雄 2007, 55-56). 당시 정치현실주의 이론은 점차 도입되는 단계로 권력정치, 세력균형 등 주요개념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중국 내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중국적

인 국제관계이론 정립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첫 시도가 왕젠웨이(王建僞)가 1986년 『세계경제와 정치 내부참고(世界經濟與政治內參)』에 발표한 “중국 스스로의 국제관계이론체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글이었다. 1987년 개최된 상해 국제관계이론 토론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을 수립이 주요 토론주제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세계경제와 정치(世界經濟與政治)』에 청이(程毅)의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학 체계 건설에 관한 의견”이란 주제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세 번째는 서방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소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논문은 천러민(陳樂民)이 1981년에 『국제문제연구』지에 쓴 “당대서방국제관계이론 간략소개”이었다. 저작으로는 1985년 천한민(陳漢民)이 쓴 『국제무대상 서방현대국제관계학 개설』이 최초의 소개서였으며, 니스쑹(倪世雄)과 진잉충(金應忠)이 1987년에 편집한 『당대미국 국제관계이론 선집』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국제관계이론을 소개한 저작이었다. 이 책안에는 모겐소(Hans J. Morgenthau), 호프만(Stanley Hoffman), 코헨(Robert Keohane), 나이(Joseph Nye), 왈츠(Kenneth Waltz), 도이취(Karl Deutsch)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秦亞青 2008b, 316).

당시 서방국제관계이론과 관련한 번역서도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친야칭은 중국 5대 출판사의 국제관계이론 관련 번역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동 기간 불과 2권만이 출판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7)</sup> 1987년 도저티와 팔즈그라프(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가 쓴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이 최초로 『爭論中的國際關係理論』로서 번역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올슨 등(David S. McLellan, William C. Olson, Fred A. Sondermann)의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이 『國際關係理論與實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밖에도 1989년에 카프란(Morton Kaplan)의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가 『國際政治中的體系與進程』,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가 『國家間政治』로 번역되었다(秦亞青 2008b, 316).

이 시기 중국 국제관계이론은 오늘날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론적 분석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초기단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이런 의미에서 국제관계이론을 연구한 학자들도 환쌍(宦鄉), 루이(魯毅) 등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으나,<sup>8)</sup> 젊은 학자들을 중

7) 중국 5대출판사는 공안대학 출판사, 상해인민출판사, 북경대학출판사, 세계지식출판사, 절강인민출판사를 지칭한다(秦亞青 2008b, 317).

8) 특히 환쌍은 당시 국제관계이론을 접목하여 중국의 주요지도자들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다(그의 비서였던 국제문제연구소 귀권웬(郭震遠)의 증언: 2008-07). 그의 글은

심으로 점차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1988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신국제정치·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정치적 근거를 강화해 주었다. 특히 1987년 당 제13차대회에서 당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시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이념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1980년대 말 전개된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현상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이해할 시급성은 1990년대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발흥할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 2. 이론 학습단계의 심화기(1990년대)

1990년대 중국 국제관계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 연구소의 학술동향 연구팀에 의해 내부보고서 형태로 집대성된 바 있다.<sup>9)</sup>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가 지난 세월동안 이론과 정책결정의 보조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었고 향후에도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그 필요성은 더 증대할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냉전시기의 종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등장, 세계화의 진전 등은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대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관계 연구가 더욱 절실해졌으며, 중국의 정치학계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 외교 등의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었으며,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아울러 중국 내 대학에서 국제관계나 외교 관련 강좌나 학과 및 대학원들이 새로이 증설되고 그 수가 급증하였다. 심지어는 전통적인 이공계 대학에서도 국제관계 관련 연구소나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화(淸華)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 교통(交通)대학의 정치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원의 설립이었다(王逸舟 2006, 6).

중국은 1990년대에 국제관계 이론들을 번역하고 개념들을 이해하는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새로이 도입한 국제관계 이론들을 분석틀로 국제관계의 현상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돌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도약이 1980년대 말에서 본격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서방

환상(宦郷 1994) 참조.

9) 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學術動態課題組. “世界經濟與政治研究的現狀和今後的趨勢.” 『經濟研究參考』 第33/34期 1998年 4月 8日, 1-56.

의 국제관계 관련 이론서들이 밀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인민대학의 국제정치학과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서방의 주요 국제관계 저서들을 차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중국 인민공안대학, 상해인민출판사에서도 국제관계 이론과 관련한 번역서들을 출판하였다. 그 중에는 코엔과 나이(Robert Keohane & Joseph Nye)의 *Power and Interdependence*(『權力與相互依賴』, 1992), 왈츠(Kenneth Waltz)의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國際政治理論』, 1993), 길핀(Robert Gilpin)의 *War & Change in World Politics*(『國際政治中的戰爭與變革』, 1994), 웬트(Alexander Wendt)의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國際政治的社會理論』, 2000)가 있었다(秦亞青 2008b, 317). 그 밖에도 헌팅톤(Samuel Huntington), 키신저(Henry Kissinger), 브레진스키(Zbigniew Brezinski)의 주요 저작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학자들이 서방의 국제관계 이론을 응용하여 국제관계 현상들을 분석하는 저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 진잉충(金應忠)과 니스쑹(倪世雄) 교수가 1992년에 공저한 『국제관계 이론 비교연구(國際關係理論比較研究)』와 왕이저우 교수가 1998년 저술한 『서방국제정치학: 역사와 이론(西方國際政治學: 歷史與理論)』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분야의 연구논문들의 수는 198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국제관계 관련 주요 5대 학술지에 1991~2000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총 331편으로 매년 평균 33.1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거의 매년 5.5배가 증가한 수로 이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관련 연구가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추세로 볼 때, 1990년대 중국 국제관계 연구추세는 이론보다는 정책과 연관된 연구가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친야칭(秦亞青)이 1993~1997년 사이 『국제문제연구』, 『미국연구』, 『외교학원학보』 등의 학술지에 발표한 국제관계 관련 글 380여편 중에 정책연구 글은 255편으로 67.1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쑨쉐핑(孫學峰) 교수의 1995~1998년 사이 『국제문제연구』, 『미국연구』, 『외교학원학보』, 『세계경제와 정치』, 『구주연구』, 『현대국제관계』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문제 관련 논문에서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로 나와 재확인되고 있다(薛力·蕭歡容 2006,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분야에서의 발전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5대 학술지 중에서 『구주誌(歐洲研究의 전신)』는 아예 국제관계 이론 항목을 개설하였고, 『세계경제와 정치』誌는 특히 국제관계 이론과 관련한 연구를 중시하여 전체 국제관계 관련 논문 중 이론 연구

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하였다(秦亞青 2008b, 317-318). 또한 이시기에는 이미 전에 언급한 번역출판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제관계이론인 정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중국 국제관계학계에 미국 국제관계학의 영향이 깊게 침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수반하여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3대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친야칭은 이 시기에 자유주의 이론이 특히 신속하게 발전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시기 발표된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 관련 논문의 수에서 가장 수가 많은 학파가 대체로 자유주의 학파의 글이고 다음으로 현실주의 학파의 글이 뒤를 이었다.<sup>10)</sup> 1993년 이후 본격화된 자유주의 연구는 1990년대 이론연구의 약 3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자유주의 학파의 확장과 이론적 발전은 1990년대 말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정치를 영합적(zero-sum)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비영합적(non zero-sum) 상황으로 인식하고, 협력과 발전을 강조한 “신안보관”의 채택에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

정치현실주의 이론 연구가 자유주의 연구의 뒤를 이었는데, 당시 안쉐통(閻學通)의 『중국국가이익분석(中國國家利益分析)』(1996) 및 친야칭의 『패권체계와 국제충돌(霸權體系與國際衝突)』(1999)은 가장 탁월한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다(蘇長和 2006, 114-117). 구성주의 연구는 아직 거의 맹아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용타오(劉永濤)가 1990년대 말 저술한 『서구 현실주의이론과 구성주의 비판(西方現實主義理論與建構主義批評)』(1998)은 중국 구성주의 연구의 기념비적인 시작을 알리는 글이었다(劉永濤 1998).

동 시기 중국적인 국제관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양과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91년 6월 북경대 국제관계연구소 주최로 “새로운 세기의 도전(跨世紀的挑戰) — 중국 국제관계학과의 발전”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993년 8월에는 상해 평화 및 발전연구소 등 주최로 산둥 엔타이에서 “국제문제이론학술회(國際問題理論務虛會)” 개최, 1994년 12월 북경대 국제정치학과와 국제관계연구소의 주최로 “21세기를 향한 중국과 세계 (21世紀的中國與世界)”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상해 복단대 국제정치학과와 중국 국제관계사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여 “전국 국제관계이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

10) 친야칭(秦亞青 2008b)의 315, 323-324 및 <도표 10-1>을 참조하시오.

다.<sup>11)</sup> 이 모든 회의에서 주요 주제중 하나는 중국 특색의 이론 문제였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친야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논문이 매년 출판된 빈도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최대 편수도 5편 미만이었다.<sup>12)</sup> 단, 이 시기 중국특색의 국제관계 연구는 비록 맹아적이었지만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본질적인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국내의 상황과 국제 환경 및 발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중국이 발전하는 데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중국인의 독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학파의 수립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은 북경 대학의 량셔우더 교수였다. 사회주의 국제관계이론에 기초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자였던 량셔우더는 점차 서방 국제관계 이론의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학이 결국은 자국의 시각으로 국제문제를 분석하고 자국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이론을 지도원칙으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에 입각하며, 중국의 국가이익에 봉사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기반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梁守德·洪銀嫻 2000, 32-35). 한상희는 이러한 량의 입장은 단지 국수주의적인 입장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인류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sup>13)</sup>

물론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연구 주장이 중국 국제관계 학계에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朱峰 1995). 첫째, 중국 특색이란 개념은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이념적인 개념이다. 두 번째, 특색의 형성은 선형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의 발전과 성숙에 달려 있다. 세 번째, 학술연구의 중심은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특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중국 학자의 연구는 그 자체로 중국 특색을 지니는 것이지만 “특색”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중국 특색을 강조하다 보면 이론의 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술적 성격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연구 및 더 나아가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 정립을 위한 노력에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량의 입장은 여러

11) 이 밖에도 북경대 국제정치학과,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중국 국제관계사학회 등도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토론회를 2회에 걸쳐 공동 개최한 바 있다. 한상희(2002)의 주 53 참조.

12) 친야칭(秦亞青 2008b, 315). <도표 10-1>을 참조하시오.

13) 한상희(2002, 376-378)는 이러한 량교수의 입장을 본인의 평가와 더불어 재정리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 중국 문화전통에 입각한 외교이론 연구, 서방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중국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려는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倪世雄·許嘉 1997, 11-15).

#### IV. 중국적 국제관계이론 정립 노력: 이론 창조단계 초기시기(21세기 초~)

21세기 들어 중국의 국제관계 분야 연구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작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두 번째로는 국제관계이론 연구에서 구성주의 이론 연구가 활발해져, 기존의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연구 분야와 그 수량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등해 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적 국제 관계이론의 형성노력이 일반화되고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 1. 국제관계 연구의 비약적 발전

친야칭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5대 출판사의 주요 국제관계 저작의 번역편수가 1990년대 10편에서 2001~2007년 기간 사이에 74편으로 급증하여 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무려 10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범위도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저작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이론, 복잡계(Complexity) 이론, 세계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 비주류 이론들의 연구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 5대 학술지에 등재된 국제관계 이론 관련 논문의 수도 21세기 들어 급증하여 1990년대 연평균 33편정도 발표되던 수준에서 21세기 들어서는 연평균 약 102편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1980년대의 17배에 달하고, 1990년대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수록 그 증가 추세는 더욱 현저하다.<sup>14)</sup>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 량셔우더 교수는 크게 맑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덩샤오핑 사상에 국제관계 연구,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 서방이론

14) 친야칭(秦亞青 2008b, 315-321). 아울러 <도표 10-1>과 <도표 10-3> 참조.

에 대한 번역과 평가 연구로 대별하고 있다.<sup>15)</sup> 한편 니스쑹은 중국지도자의 외교사상, 중국 문화전통에 착안한 외교이론, 서구 이론에 기초한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倪世雄 2001, 489-490). 그러나 친야칭의 중국 5대 학술지의 분석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주류는 자유주의 이론이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현실주의 이론 연구가 거의 양립하는 형세를 취하였다. 21세기 들어서 이러한 양립구도는 새로이 부상하는 구성주의이론 연구 분야에 의해 무너져,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이론 연구가 삼립(三立)하는 구조가 되었다.<sup>16)</sup> 2007년 현재 주요 이론 분야의 글이 각기 30편 이상이 나오고 있다.

〈표 2〉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학파 분류(1978~2007)<sup>17)</sup>

분류	유파	주요 개념	점유율
맑스주의	고전 맑스주의	계급분석	6%
	신 좌파		
현실주의	고전 현실주의	권력, 충돌	27%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제도, 협력	33%
	자유주의		
구성주의	주류구성주의	문화, 동질감	18%
중국특색 이론	경전파	지도자사상 이론	6%
	전통파	전통이론의 현대적 적용	
	균형파(學衡派)	중·서양의 융합	
기타 이론	포스트 모더니론		10%
	여성 이론		
	환경 이론		
	기타 유형이론		

15)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은 량수더(梁守德 1997) 참조.

16)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별 연구동향을 가장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논집은 왕이저우(王逸舟 主編 2006)임.

17) 친야칭(秦亞青 2008b, 322). <도표 10-3>과 <도표 10-4> 참조.

최근 들어 구성주의 연구가 현실주의 연구를 앞지르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는 데, 발표 논문 수에 있어서 2007년 현재 자유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론과 관련한 글의 순으로 순위가 구성되었다.

## 2. 구성주의 연구의 요약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에 있어서 21세기 초 가장 큰 특징은 구성주의 연구의 비약적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웨리와 샤오환룽 교수는 2006년 공동논문에서 중국의 주요 학술지인 『세계경제와 정치』, 『구주연구』, 『현대국제관계』, 『국제관찰』, 『국제논단』, 『미국연구』, 『일본학간(日本學刊)』의 1998~2004년 발간 논문들을 연구 분석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구성주의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일반 국제관계 이론 연구 분야에 비해 정책 분야에 적용하거나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이론적인 연구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이론분야의 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론분야의 연구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이는 중국 구성주의 연구가 아직도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론에 대한 소개나 비판, 해석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성주의 이론의 속성상 문화 및 동질감 등의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단, 친야칭이 2009년 『중국사회과학』지에 발표한 “관계본위와 과정 구성(關係本位與過程建構)”이란 논문은 중국 구성주의 연구가 어떻게 “중국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글이라 하겠다.<sup>18)</sup>

중국의 학계에서 구성주의 연구자들은 2006년 현재, 대체로 40세 미만의 젊은 학자들이

〈표 3〉 중국 구성주의 관련 연구논문 발표분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발표량	1	3	6	10	16	19	17
이론분야	1	2	4	10	5	15	12
정책분야	0	1	2	0	7	4	5

출처: 웨리·수환룽(薛力·蕭歡容 2006, 43)

18) 친야칭(秦亞青 2009, 69-86). 중국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하겠다.

며<sup>19)</sup> 전체 수로는 약 40여 명이 존재하는 데, 웨정칭(袁正淸), 귀수용(郭樹勇), 친야칭, 방장핑(方長平), 류용타오, 판취화(范菊華), 양광(楊廣)이 주요 연구자들이다. 이들 연구의 80% 이상이 이론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오직 류용타오, 친야칭, 양광만이 실증주의적 연구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薛力·蕭歡容 2006, 44).

비록 짧은 수용기간이지만 중국의 구성주의 연구는 우선, 류용타오의 『당대 서구 구성주의 동향분석』, 친야칭의 『국제정치의 사회 구성』과 같이 이론이나 핵심개념에 대한 소개에서부터(劉永濤 1999, 37-40; 秦亞青 2001, 5-11), 친야칭의 『권력·제도·문화』처럼 다른 학파들과의 비교연구, 구성주의를 위주로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웨정칭의 국제관계연구방법론 연구 등이 존재하며 점차 개념의 합의 연구를 심화하면서 “과정적 구성주의(過程建構主義)”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출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秦亞青 2009, 69).

### 3. 국제관계 연구의 중국화 추세

21세기 들어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을 수립하자는 데 반대하는 주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그간 중국학계에서 서구적인 국제관계이론의 수입, 학습, 발전의 결과이후 자연스레 나타난 자의식의 표출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따라 수반하는 자신의 시각에 입각한 국제관계 이해 및 정립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적 특색을 지닌 국제관계학의 수립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은 “중국학파”의 수립이라는 개념을 이에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石斌 2006, 526). 메이란(梅然)은 그의 논문에서 미국의 국제정치학은 본질적으로 강자의 정치학이며, 미국적인 국제정치의 해답을 추구해 온 것으로 주장하였다. 중국 역시 중국적인 해답을 추구할 자신만의 국제정치학이 필요하고, “중국학파”의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다.<sup>20)</sup>

이러한 중국학파의 형성 주장의 구체적인 예로, 2004년 상하이에서 중국 내 주요연구단체들이 국제관계이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내건 주제가 “중국이론을 구성하고, 중국학파를 창건하자(建構中國理論, 創建中國學派)”였다. 당시 회의는 “중국특색을 본위로 하고, 맑스주의 국제관계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면서, 서방이론의 합리적 내용을 흡수

19) 류용타오와 친야칭만이 예외다.

20) 메이란(梅然 2000)을 참조할 것.

하고, 중국전통과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제정치발전의 현실을 맞이하자”는 내용의 결론을 맺었다.<sup>21)</sup> 이 회의의 직전 2004년 9월에 톈양에서 전국고등교육 정치연구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중국 국제정치학 토론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인식이 공유되었다. 즉, 중국의 부상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론이 필요하고,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 형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sup>22)</sup>

이미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시작한 중국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의 내용은 평화 5원칙, 제3세계론, 평화와 발전의 두 축이론, 국제정치 신질서론 등을 담고 있었다(馮特君·宋新寧 1992, 36-37). 리이후(李義虎)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의 내용은 우선, 중국학파가 전통적 현실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극화 및 다극화와 같은 국제구조, 국가역량, 종합국력과 같은 개념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으며, 둘째, 외교정책이론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국제구조에 대한 편중된 관심은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미시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넷째, 국제구조의 강조 중 불평등성과 동태적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여 정태적인 서구 현실주의 이론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다섯째, 기본적인 모순 문제를 제기하여 이것이 국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학파는 서방 국제관계 이론에 비해 보다 포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학파는 인성이나 국가의 본질적인 성격이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는 본질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며, 강제보다는 국제도덕을, 인간, 자연, 국가관계의 조화를, 무정부상태보다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통한 질서를,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는 국제체계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李義虎 2004).

친야칭의 분석에 의하면, 21세기 들어 당위적인 측면에서 중국학파의 형성 주장이 널리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들 소위 “중국학파”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가 중국 국제관계연구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그 논문의 양에 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수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류 3대 이론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 그리고 1978~2007년 기간 중 중국특색 혹은 중국학파의 논문 수는 약 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다.<sup>23)</sup>

21)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귀수용. “全國國際關係理論研討會在上海交大隆重舉行.”(<http://www.irchina.org/news/view.asp?>)

22) 이에 대해서는 순권젠·순순(孫君建·孫遜 2005) 참조.

23) 친야칭(秦亞青 2008b, 322). <도표 10-1> 참조.

왕이웨이(王義桅)와 니스쑹은 중국의 실천적 경험들이 중국적 특색과 같은 “특수성”의 가치를 내걸지 않더라도 보다 일반적인 국제관계이론의 정립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王義桅·倪世雄 2003, 28-29). 그러나 이처럼 “중국 특색”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국제관계를 중국인의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적 특색을 주장하던 혹은 중국학파의 수립을 주장하던, 아니면 제3의 주장을 하든지 맑스주의 이론이 중국화의 과정을 거쳤듯이, 서구적인 국제관계이론은 선택되고, 소화되고, 실제의 상황들과 결합하면서 중국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石斌 2006, 527). 중국 특색이론의 선구자이기도 한 량셔우더 역시 “중국 특색은 곧 중국화를 의미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梁守德 2005).

<표 2>에 의하면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은 크게 경전파, 전통파, 균형파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전파는 맑스이론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집단으로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세가 약화되고 있고 향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시의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세대 학자들이 퇴조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국의 전통적 전략사고나 정치문화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국제관계 및 현재 세계질서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들 전통파는 최근 들어 점차 그 세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 전통의 정치질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가(儒家)적인 정치질서나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 천하제도관의 긍정적 재해석 등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오밍양의 『천하체계』(2005)를 들 수 있다(趙汀陽 2005, 5-49).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노력이 균형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험과 유산 및 서구적인 개념 및 분석 방식 등을 결합하여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표 4>에서 보듯이 21세기 들어 이 집단이 발표한 논문의 수는 다른 중국학파를 압도하고 있다. 이 집단의 주요 담지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학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그 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표 4〉 중국특색의 국제관계이론 유형별 논문 수

	1978~1990	1991~2000	2001~2007
경전파	60	73	29
전통파	0	3	24
균형파	40	24	47

출처: 진야칭(秦亞青 2008b, 328)

노력이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친야칭 교수의 『중국사회과학』에 나온 “관계본위와 과정 구성”라는 논문이다.

친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중국적 특색을 지닌 구성주의 이론의 형성 혹은 구성주의 이론의 중국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서방 국제관계이론의 핵심이념은 이성인데 반해, 중국 사회문화의 주요 이념은 ‘과정’과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 개념을 국제관계이론 분석에 도입하여 “과정적 구성주의 이론”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과정을 동태적인 관계로 정의하면서, 과정의 동태성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핵심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관계의 네트워크 형성정도가 국제관계상 한 국가의 지위나 국제적 역량/힘을 의미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이러한 관계의 동태성과 함의를 국제관계 이론 속에서 이론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평화로운 부상 전략,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전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중국화한 국제관계이론의 정립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는 초기의 전 이론적 단계를 거쳐, 이론 수용의 초기 및 성숙 단계를 거쳐 오늘날을 독자적인 이론, 혹은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화를 모색하는 창조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유파들이 상호 경쟁하는 구도, 즉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 사회과학이 의미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이해하던 세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중국화는 이미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축적된 학문적 성과이기도 하며,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국력성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친야칭이나 왕이저우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 학계 내에서 지난하게 추구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제관계 연구의 중국화 및 과학적 발전은 그 수준에 있어 아직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秦亞青 2008b, 306-343; 王逸舟 2006, 1-10). 이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중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설명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도 “중국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중국의 학술계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중국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실증적인 연구가 여전히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구성주의 이론의 연구나 다른 이론 분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중국 국제관계 이론 연구는 여전히 서구적인 의미의 과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구성주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관계 연구가 이론 분야보다는 정책성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 정책결정의 보조 학문으로서 국제관계학이 존재한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중국특색 국제관계 연구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나 “독립자주 외교노선”이라는 정치적 구호나 정책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현재 관변 싱크탱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중국 국제관계 연구의 주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점차 일반 학계의 학자들이 수와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측면은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의 발전이 중국의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와 외교정책 사이의 동조화 현상은 대단히 중국적인 특색이다. 중국 내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 분파들이 형성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중국 내 다양한 외교사상의 형성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더 이상 단일한 사고나 사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평화로운 부상”을 주장하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 “동태적인 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는 중국 구성주의 연구가 주는 함의는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활용 및 향후 중국의 새로운 세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10년 3월 14일  
 심사일 2010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30일

## 참고문헌

- 한상희. 2002.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발전방향과 현황.” 『중국연구』 제29권.
- 김애경. 2006.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중국학과 수립시도에 대하여.” 『중국정치 연구회 대외관계 어젠다 발걸 세미나』. 중국 정치연구회. 5월.
- 傅耀祖·顧關福 主編. 2005.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北京: 時事出版社.
- 宦鄉. 1994. 『宦鄉文集 上·下』.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郭樹勇 主編. 2005. 『國際關係: 互換, 中國理論』.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梁守德·劉文祥. 2003. 『鄧小平的國際政治理論』.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 梁守德·洪銀嫻. 2000. 『國際政治學理論』.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 梁守德. 1997. “國際政治學在中國.” 『國際政治研究』 第1期.
- . 2005. “中國國際政治學建設的探索.” 『世界經濟與政治』 第2期.
- 劉永濤. 1998. “西方現實主義理論與 建構主義批評.” 『世界經濟與政治』 第11期.
- . 1999. “當代西方建構主義取向評析.” 『現代國際關係』 第9期.
- 倪世雄·許嘉. 1997.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 歷史回顧與思考.” 『歐洲』 第6期.
- 倪世雄. 2001. 『西方國際關係理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魯毅·俞正梁·傅耀祖·顧關福 主編. 1999. 『新時期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北京: 時事出版社.
- 梅然. 2000. “該不該有國際政治理論的中國學派?” 『國際問題研究』 第1期.
- 馮特君·宋新寧. 1992. 『國際政治概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秦亞青. 2001. “國際政治的社會建構.” 『歐洲研究』 第3期.
- . 2008a. 『權力·制度·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 2008b. “中國國際關係理論.” 王逸舟 主編, 『中國對外關係轉型 30年』.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 2009. “關係本位與過程建構: 將中國理念植入國際關係理論.” 『中國社會科學』 第3期.
- 上海國際關係學會(編). 1991. 『國際關係理論初探』. 上海: 上海外語教學出版社.
- 謝益賢. 1987. “關於建立國際關係學的若干構想.”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 薛力·蕭歡容. 2006. “中國的建構主義國際關係研究: 成就與不足(1998~2004).” 『世界經濟與政治』 第312期.
- 宋僞. 2009. “从国际政治理论到外交政策理论.” 『外交评论』 第3期.
- 石斌. 2006. “國際關係研究中國化的論爭.” 王逸舟 主編, 『中國國際關係研究(1995~200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蘇長和. 2006. “中國的國際制度理論研究.” 王逸舟 主編. 『中國國際關係研究(1995~200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孫君建·孫遜. 2005. “創建中國理論: 突出中國特色.” 『國際政治研究』第1期.
- 王經涌. 2005. “國際關係研究的幾個問題.”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北京: 時事出版社.
- 王義梳·倪世雄. 2003. “論比較國際關係學級國際關係理論的中國學派.” 『國際政治研究』第1期.
- 王逸舟 主編. 2006. 『中國國際關係研究(1995~200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 2008. 『中國對外關係轉型 30年』.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逸舟. 2006. “過渡中的中國國際關係學.” 『世界經濟與政治』第4期.
- 肖歡容 主編. 2005. 『國際關係學在中國』. 北京: 中國傳媒大學出版社.
- 葉自成. 2005. “國際關係研究中的中國視野.” 『外交評論』第3期.
- 李義虎. 2004. “國際格局研究的現實主義趣向和中國學派.” 『國際政治研究』第2期.
- 袁明 主編. 1993. 『跨世紀的挑戰: 中國國際關係學科的發展』. 北京: 重慶出版社.
- 趙可金·倪世雄. 2007.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趙汀陽. 2005. “天下體系.” 鄧正來 主編, 『中國書評』第5輯.
- 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學術動態課題組. 1998. “世界經濟與政治研究的現狀和今後的趨勢.” 『經濟研究參考』第33/34期 4月 8日.
- 朱峰. 1995. “21世紀的中國與世界 國際學術研討會綜述.” 『國際政治研究』第1期.
- 中國國關在線, <http://www.irchina.org>.
- Callahan, William A. 2001. “China and the Globalization of IR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6).
- Chan, Gerald. 1998. “Toward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ssues & Studies* 34. No. 6.
- Hu, Wixing. Gerald Chan, Daojiong Zha. 2000.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ong, Xinning. 2001. “Buil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No. 26.
- Zhang, Ming. 1997. “The New Miss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Revisit to Communist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al Politics* 13. No. 4.
- Zhang, Yongjin. 200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China Today.” *The China Journal*. No. 47.

ABSTRACT

---

## A Study on Evolv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China

Heungkyu Kim | IF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analyze China's adopting proces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o acknowledge its present status, and finally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it has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foreign policy.

The study o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as been evolving through pre-theoretical step, early adoption and maturing steps and now reached a creative level where they pursue their own independent theories or Chin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ere are already various theoretical schools competing with each other and providing plural points of views. Despite 30 years of Chinese academia's continuous efforts to build its ow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r, Chinization and the scientific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till stay far off level.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China's study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s that there is much lacking of practical analysis and the other one is that the studies, except for those of constructivism, are more focused on policy making than the theory-building. Development 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its foreign policy are surely unseparable and this strong accordance between studies and policy is one of Chinese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in which man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re established and compete with each other in China reflects that various ideas are suggested for China's diplomacy. It also means that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would

not follow an unitary and a single mechanism of thoughts any more.

**Keywor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China's characteristics, Chinization, constructivism, Chinese schools